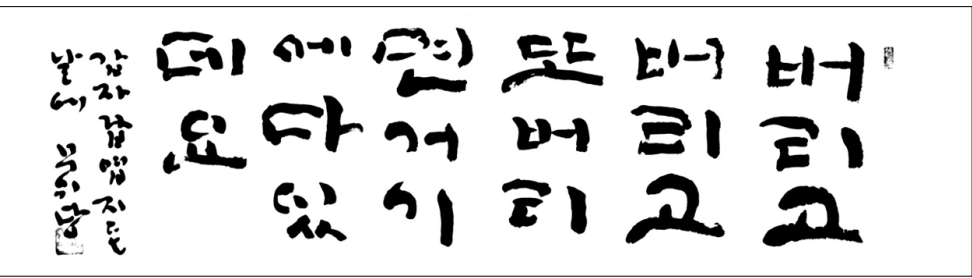


# 보잘 것 없는 좁쌀 한 알 생명운동의 싹 틔우다



좁쌀 한 알  
최성현 지음 | 도솔 | 9,800원

장일순 선생 서거 10주년 기념 추모집 나와



장일순의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면 거기에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닦습니까?”

“주로 혼자서 걸어요…”

길가에 풀이 나서 자라는 걸 보는데,  
그 풀들이 저를 일깨우지요.”

〈한겨레 21〉의 정재숙 기자가 살아생전 장일순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째서 ‘조 한 알’이라는 그처럼 가벼운 호를 쓰십니까?”

장일순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나도 인간이라 누가 뭐라 주어주면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내 호는 그런 마음을 지극히 눌러주는 화두 같은 거야. 세상에 제일 하잘 것 없는 게 좁쌀 아닌가. 내가 조 한 알이다”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르는 거지.”

〈좁쌀 한 알〉은 이처럼 ‘한국 생명운동의 대부’인 무위당(조 한 알) 장일순(1928-1994)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술한 일화에 그가 남긴 글씨와 그림을 곁들인 책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아마도 여기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살아생전 발자취와 향기를 뜻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움’이란 명사(名詞)로 자리매김 된다. 이 책이 바로 장일순 선생의 서거 10주년을 기리는 ‘무위당을 기리는 모임’에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펴낸 그리움의 소산물이다.

저자는 2002년 겨울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친 많은 인터뷰를 통해 리영희, 김지하, 박재일, 임재경, 이창복, 김정래, 김민기 등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인물들이 기억하는 장일순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았다.

그러면 젊은 세대에게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장일순

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교육자이자 서예가이며 재야운동가였던 장일순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탁발승들과 밥을 얻어먹으며 진리를 설하던 붓다를 떠올리게 한다. 평생 강연도 원주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술한 당대의 재야 정치가와 사상가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됐던 그의 삶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보통사람으로서 행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이웃사랑은 지역 주민은 물론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준다. 시인 김지하의 스승이고 <녹색평론>의 김종철 대표가 단 한 번 보고 반했다는 말을 할 정도다. 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흥준 명지대 교수는 장일순과는 어디를 가든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함께했던 인물에게는 그와 비례하는 일화가 남는 법이다. 장일순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열거된 그의 발자취를 애써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몇 가지의 일화만 읽어보면 그의 인간됨과 살아생전 의모습이 펼쳐진다. 그 중에서 두 개의 일화를 소개한다.

### #일화 1

이화여대 정현경 교수가 장일순에게 물었다. “불교에서는 좌선을 하고, 기독교에선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닦습니까?” “주로 혼자서 걸어요… 길가에 풀이 나서 자라는 걸 보는데, 그 풀들이 저를 일깨우지요. 풀은 땅에 뿌리를 박고 밤낮으로 해와 달을 의연히 맞고 있던 말이야. 거기에 못미치지요. 부끄럽지요. 마음을 씻는 거지요.”

### #일화 2

하루는 한 시골 아줌마가 찾아와 쌀의 혼수 장만에 쓰러낸 돈을 가져 안에서 풍뎡 소매치기당했다며 그 돈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장일순은 그날부터 원주역으로 가서 여러 날 노점상들과 소주를 마시며 탐문수사(?)



장일순은 평소 서화적업하는 것을 즐겼다. 특히 그에게 글과 그림을 달라는 청탁이 들어오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를 한 끝에 문제의 소매치기를 찾아냈고, 그를 달래서 반이년 돈에 자기 돈을 합쳐서 아주머니에게 돌려줬다. 그 뒤로도 가끔 원주역에 나가 그 소매치기에게 밥과 술을 샀는데, 그때마다 흔쾌히 꾸중은커녕 “자네 영업을 방해해서 미안하다. 용서하시라”고 말하곤 했다.

하나 더 있다. 1991년 그는 위암 선고를 받았지만, 병과 싸우지 않았다. “투병이라니 뭐하고 싸운단 말인가, 암세포도 내 세포 아닌가. 잘 모시고 의논하면서 가자지.”

그는 그렇게 암과 편안하게 3년 동안 놀았다. 자기의 목숨을 갈아먹는 암세포 앞에서 그는 자신을 위한 방어막을 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갖지만 그가 남긴 의연함과 옹골은 정신은 나약한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각인되고 있다.

김주임 기자 jkim@buddhapia.com



### 트로이

수잔 우드포드 지음 | 김민아 옮김 | 루비박스 펴냄 | 11,900원

멋진 배우 브래트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책 내용과는 다른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 있었다.

터키의 고대 도시 트로이는 원래 한 학자의 집념으로 발견됐다.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신화 속 도시로만 여겼던 트로이를 찾아 해낸 끝에 19세기말 히살리크 언덕에서 9개의 도시가 겹쳐진 고대 유적을 발견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트로이가 신화의 안개를 헤치고 역사 속으로 걸어 나온 순간이었다.

트로이의 목마, 아킬레스 건, 파리스의 심판, 가니메데스 신화...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트로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참 많다. 트로이 전쟁의 전모는 모르더라도 그리스가 군대를 숨긴 목마를 트로이의 성 안으로 침투시켜 승리했다는 목마 전략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것이다. 또 트로이를 공격한 그리스군의 선봉장이 아킬레우스였다는 건 모르지만 어머니 테티스가 스틱스 강에 아

## 트로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화·역사·미술사 넘나들며 상상력 자극

들 아킬레우스를 담궈 아들에게 불사(不死)를 안겨주려 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때 테티스의 손이 감췄던 발목만 강에 닿지 않았고 아킬레스 건은 치명적 약점을 뜻하는 관용어구로 굳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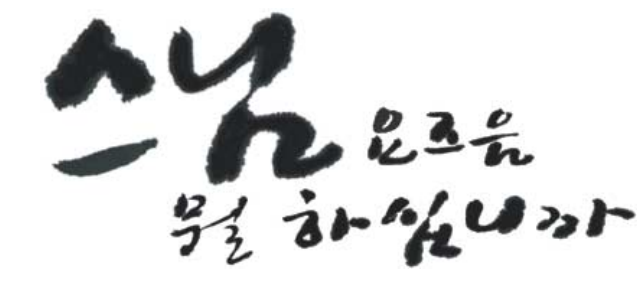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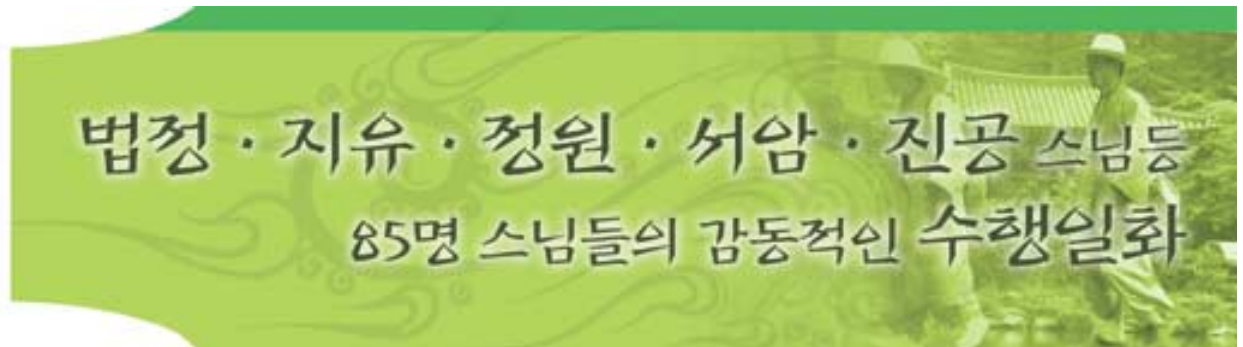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런던에서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는 수잔 우드포드가 쓴 <트로이>는 들뜬 들뜬 알고 있는 트로이에 대한 조각 지식을 짜맞춰 그림 한 장을 만들기에 더 없이 좋은 지침서다. 기초 상식이 전혀 없더라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게 구성됐다. 전쟁의 원인 제 공자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남자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초창받지 못했던 ‘불화의 신’ 에리스였다. 화가 난 그는 축제에 ‘가장 아름다운 미녀에게’ 라고 쓴 사과를 던져 놓고 갔는데 이 사과를 누가 최고의 미녀인가를 놓고 여신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제우스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아프로디테와 헤라, 아테나 중에서 미의 여신을 뽑는 심판을 맡긴다. 르네상스 시기 루벤스와 렘브란트도 소재로 삼았다. 유명한 ‘파리스의 심판’이다. 당시 파리스는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약속한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주게 되고 이 사건은 10년을 끈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 된다. 파리스가 그리스 메넬라오스의 부인이 된 헬레네를 꼬드겨 트로이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저자는 일단 기초 줄거리를 세워두고 신화와 역사, 미술사를 종합하면서 에피소드와 해석의 가치를 더한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나 에우리피데스가 등장하고 로마의 모자이크화와 벽화, 그리스 물병, 암포라(저장용 단지), 폼페이 회화, 로마 석관의 부조 등이 출몰해 당대의 역사와 신화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재해석한다.

특히 사건의 시작부터 발단, 연합군의 형성 과정의 시작, 트로이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신화와 함께, 관련된 시각 이미지가 풍부하게 덧붙여져 읽는 재미를 더한다. 영화 속에서 미진했던 고대 문화의 감성과 낭만,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만나볼 수 있어 유익하다.

■이동환 (여정북과 국사 교사)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국판 1320원 | 9,000원 | 정은 스님 | 지목 스님 외 14인 1448쪽 | 112,000원

## 스님이 이야기

수행자로 사는 보람과 기쁨, 스승과 도반들과의 따뜻한 인연 등이 정은 스님 특유의 맑고 정감 어린 문체에 실려 진솔하게 표현된 이 책을 읽노라면 문득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최근 발간된 ‘스님이 이야기’(여시아문)는 지목·효린·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암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종교는 내속에 잠재돼 있는 에너지의 방향전환이다. 또 비우는 연습이다.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생활이 있을지 싶다.”

-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중에서

경남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꽂이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 이야기로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범정 스님, 천행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결어려 지쳐본 큰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